

중국 청도 안동권씨 종친회



중국 청도에 안동권씨 종친회(권오덕 회장)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청도종친회는 1995년에 초대 권혁만 회장을 중심으로 처음 8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회원이 122명에 이르고 있다. 종친회는 설립절 등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임을 개최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회원들끼리 상호 교류하면서 안동권문의 정을 나누고 있다. 청도종친회 소

식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권명학씨가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유격대에 투신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권승준 선생의 독립군 활동을 한국정부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안동권씨 대종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권명학씨는 앞으로 안동권문의 족친끼리 교류할 게 있으면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체육대학교 권봉안 대학원장 국무총리표창

권봉안 한체대 대학원장은 지난 1984년부터 학생지도, 교육, 대학발전, 학회·체육 유관단체·학문 발전을 위한 저술 활동 등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았다. 권봉안 교수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이면서 교수 권익과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평의회 사무실을 확보하고 각 대학 간의 대학발전 정보공유를 위해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이사, 대한체육회이사, 대한수상스키협회회회장, 한국안전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체육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생활 스포츠의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권봉안 교수는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원장, 대외협력단장, 생활체육대학장,



체육과학연구소장, 안전관리학과장을 역임하면서 교육과정개선, 교육환경개선, 학생진로, 지도 멘토 시스템개발 등 대학교육과 학생지도에 질적, 양적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청주상당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권상균 경감 서원대학교 총장 표창장 수상



권상균 경감은 충북 최초로 중국·대만 국적의 유학생 치안봉사단을 구성해 외국인 통역 서비스와 캠페인 등을 펼쳐 범죄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서원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권영현 육군소장으로 승진, 제15사단 사단장 취임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출신 권영현(52세, 權映鉉) 장군이 지난 5월13일 2성장군으로 승진하여 제15사단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권장군은 북아공과 35대순으로 합천 대병에서 출생하여 부모님의 이사로 대구에서 성장하였으며 포항제철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ROTC 소위로 입관되었으며 2018년 1월 3일 장군으로 승진하여 2군단 포병 여단장으로 취임하



였다가 그해 5월 30일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5월 13일 육군 소장으로 승진하여 보병 제15사단 사단장으로 취임하였다.

경주 임란의사 추모제

慶州 壬亂義士 追慕祭

경주 임란의사 추모제가 지난 6월 9일 경주 황성공원 임란의사(壬亂義士) 추모탑(追慕塔)에서 김경호 회장 등 임란의사 후손 5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됐다.

이날 추모 행사에는 7명의 임란 의병장이 나서 영남좌도 70고를 백성들의 생명을 보전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안동권씨 좌윤공파(左尹公派) 사정공(司正公), 죽림공(竹林公) 형제 문중의 많은 후손들이 참석, 헌화 분향을 했다.

1592년(宣祖 25년) 4월 21일 부산(釜山)에 상륙한 왜적(倭賊)들이 개전(開戰) 8일 만에 경주를 짓밟았으며 왜적의 주요한 북상길목에 위치한 경주읍성(慶州邑城)엔 많은 왜병(倭兵)들이 상주하는 거점이 됐다.

경주읍성(慶州邑城) 탈환작전에 앞서 가진 문천(蛟川) 회맹에 모인 영남(嶺南) 좌도(左道)의 12고를 130여 명의 의병장(義兵將)과 4,200명의 의병(義兵)과 관군(官軍)은 소규모(小規模) 작전을 통해 경주읍성(慶州邑城)에 주둔한 왜병(倭兵)들을 성(城)안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경주 의병진은 임진년(壬辰年) 8월 열여섯 고을 3만 여명이 경주읍성(慶州邑城) 공략에 나섰으나 조종으로 무장한 왜적의 화력에 막혀 2천여 명이 숨졌으며 2차 공략도 실패 했으나 조선(朝鮮) 의병들의 기세를 왜적(倭賊)에게 알린



기회가 됐다. 1, 2차 전투는 활과 죽창으로 무장했던 경주지역 의병들이 개전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투가 됐다.

경주 문천(蛟川) 회맹에 모였던 의병들은 9월에 가진 3차 탈환전(奪還戰)에서는 화포장(火砲匠) 이장손(李長孫)이 개발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앞세워 경주읍성(慶州邑城)을 되찾았다.

경주 의병들은 경주읍성(慶州邑城)탈환의 기세를 영진성(永進城) 재탈환(再奪還)작전과 대구 팔공산 회맹, 창녕 화왕산 회맹으로 연결시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7년간의 크고 작은 전투에 권사약, 권사민, 권여정, 권복흥, 권복시, 권운생 등 7명의 의병장이 생목숨을 내걸고 왜군과 싸웠다. 임란 항쟁사에서 같은 문중에서 7명의 의병장이 나오기는 처음이었다. 편직위원장 권오신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안동 권씨 전국청장년 협의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권갑수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22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교통1번지인 서울역 그늘에서 100만 권문의 본향인 안동 권대능 회장님의 발의로 한반도의 중심인 청주 권광택회장을 초대회장님으로 추대한 이후 제2대 권영수회장님, 제3대 권영식회장님, 그리고 오늘 임임하시는 제4대 권승호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 하면서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13세기 초 몽골제국을 개국 한 징기즈칸의 책사인 아율초재의 많은 명언 중 “더 하기와 빼기”이

론인. “與一利不若除一害(여일이부약제일해), 生一事不若滅一事(생일사부약멸일사)”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라는 명언을 인용 하여 취임사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본회 제5대 회장으로서 나아가 100만 권문의 일원으로서 권기1090년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는 자세로 전임 회장님들의 승조정신을 이어 받아 본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다망 중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권해욱회장님, 권영진시장님, 그리고 본회 각 지역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각 지역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00만 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8일

안동권씨 전국청장년 협의회
제5대 회장 권갑수

권영진 대구시장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대구호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

권 시장은 지난 14일 호훈병원에 임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권 시장은 “애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의 꽃을 피웠다. 대구시는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공동체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 후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보훈가족 9명에 대한 시상 표창을



수여하고, 관내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보훈정책에 대한 고견도 청취했다.

권기식 “한중 안보·국방 고위급 민간 전략대화 정례화 합의”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민간 전략 포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9일 베이징(北京) 거화카이위안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안보 분야 고위급 민간 전략 대화를 정례화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면서 “내년에는 중국 측 인사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정치상황국장을 역임했던 권회장은 “사드 문제 처리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한중 대화 채널은 보이지 않았고 양 국민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로 사대질을 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운을 뗐다. 권기식 회장은 “이후 한중간 경제 교류가 위축됐고 인적 교류도 반 토막 났다”면서 “중국국제우호연락회와 대화하며 서로 신뢰할만한 '1.5트랙'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1년이 넘는 준비 과정을 거쳐 이번엔 행사를 했다”고 전했다.

'전국 청년상인 페스티벌' 서 권창중 표창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7-19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일대에서 '제1회 전국 청년상인 페스티벌'을 열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청년상인과 특성화시장의 상인들이 격려하고 이들이 개발한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충남 당진시장의 권창



중 주무관 등 7명은 개인 표창을 받는다. 권 주무관은 당진지사장 내 전통시장과 대기업이 협력해 문을 연 상생스토어로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세부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아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민섭